

## 一然의 國王觀

- 『三國遺事』 「紀異」 편을 중심으로 -

박 미 선\*

### 【국문초록】

일연이 살았던 13세기는 무신정권, 몽골과의 전쟁, 원의 간섭에 이르기까지 혼란의 시기였다. 20년 남짓 은둔 생활을 하던 일연은 1249년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몽골과의 화친이 추진되고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면서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나갔다. 이러한 행적에서 일연은 최씨 무신정권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반대로 국왕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연은 국왕 권력의 확립을 고려사회의 당면과제라고 여겼고, 이에 왕들의 신이한 행적을 담은 「기이」편을 『삼국유사』 첫 머리에 수록하였던 것이다.

불교경전에서 왕을 天子 또는 天의 보호를 받는 자로 설명하며, 외적을 방어하여 국토를 수호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는 것을 왕의 임무라고 하였다. 『삼국유사』 「기이」편에서 천 또는 천손으로 각국 시조의 모습을 담고, 천신의 보호를 받는 왕의 모습, 국토 수호와 백성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왕의 모습, 한편으로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해 천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왕의 모습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불교적 국왕관에 입각했을 때 일연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왕상은 '문무왕'이었다고 짐작된다. 문무왕은

\* 대림대학교 시간강사

一統三韓을 이루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으며, 죽어서도 용이 되어 국토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일연은 신이한 행적을 통해 왕권의 신성함과 신성한 왕의 올바른 통치를 강조하고자 「기이」편을 찬술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一然, 三國遺事, 紀異, 天, 文武王, 최씨 무신정권

목 차

I. 머리말	III. 一然의 시대인식과 國王觀
II. 불교의 國王觀과 「紀異」편에 보이는 國王	IV. 맺음말

I. 머리말

역사서로서 『三國遺事』는 필연적으로 『三國史記』와 비교·연구되어 왔다. 官撰 대 私撰, 유학자 대 승려 등의 상반되는 점에서 크게 유교적 합리성에 바탕한 『삼국사기』와 ‘神異’에 바탕을 둔 『삼국유사』로 규정해 왔다. 一然이 「紀異」편 敍에서 “옛 성인들이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으나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한 데에서 일어났으므로 기이」 편을 첫 머리로 삼는다.”고 밝힌 바,<sup>1)</sup> 기존의 유교사상에 기반한 사서와는 다른 성격, 다른 사상을 토대로 遺事를 찬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神異史觀’으로 정의해 왔으며, 신이를 바탕으로 민족

1) 『三國遺事』 卷1 紀異1 敍.

사의 강역 확대와 발전사의 체계를 세우고, 유실·망각되는 문화 전통을 기록함으로써 우리 역사에 대한 자주적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삼국유사』를 평가해 왔다.<sup>2)</sup>

이러한 평가는 일연이 살았던 13세기가 30여년에 걸친 몽골의 침략과 원의 간섭 하에 놓인 암울한 시대였기에, 이 시대에 대한 인식이 『삼국유사』에 투영되었다고 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몽골과의 항쟁 못지않게 무신정권기, 특히 최후 무신정권기라는 독특한 상황에 고려사회가 놓여 있었다. 더욱이 기이」편은 각 국의 시조를 다루고, 특히 신라사의 경우 왕 중심의 서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세력의 동향이나 무신정권에 대한 일연의 인식도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기이」라는 편명과 신이에만 너무 주목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찬자 일연이 승려이고 『삼국유사』의 9편목 중 「왕력」 「기이」를 제외한 「홍법」 이하 7편목이 불교 관련 내용이므로,<sup>3)</sup> 역사서의 성격을 띤 기이」편에도 ‘불교적 사유’에 기반한 역사인식·역사관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sup>4)</sup> 즉

- 
- 2) 李基白, 1976,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意義」, 『韓國의 歷史認識(上)』, 창작과 비평사 ; 김태영, 1976, 「三國遺事に 보이는 一然의 歷史認識에 대하여」, 『韓國의 歷史認識(上)』, 창작과비평사 ; 정구복, 1987,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고찰」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조동일, 2001, 「『삼국유사』의 기본특징 비교고찰」,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 윤석호, 2002, 일연과 역사학」, 『민족문화』 13, 한성대 민족문화연구소 ; 라정숙, 2000, 「일연의 생애와 역사인식」, 『지역학논집』 4.
- 3) 「기이」편과 「홍법」편 이하와의 관계에 대해, 「기이」편을 「홍법」편 이하의 ‘배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삼국유사』를 불교사 중심으로 보고 「기이」는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서설 부분으로 이해하거나(김영태, 1974, 「三國遺事의 體裁와 그 性格」, 『동국대학교 논문집』 13 ; 『신라문화연구』, 민족문화사, 1987), 「홍법」 이하가 개인을 주 대상으로 설명한 것이라면 「기이」는 개인이 몸담고 살고 있는 국가와 국가를 다스리는 인물들을 다룬 점에서 배경이 된다고 보기도 한다(정구복, 1987,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고찰」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3쪽).
- 4) 일연의 불교사상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채상식, 1979, 「普覺國師 一然에 대한 研究-迦智山門의 登場과 관련하여-」, 『韓國史研究』 26

기이」편을 관통하고 있는 '신이'를 '불교적 사유'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불교적 사유와 관련하여 기이」편이 왕 중심의 서술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불교의 '국왕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불교에서 '왕'이란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왕에게 부여된 의무와 통치방식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점을 기이」편에 보이는 왕에 대한 서술과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삼국유사』는 遺史가 아닌 遺事인 만큼 찬자 일연의 개인적 경험이나 인식이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연의 시대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일연의 '국왕관'을 고찰하겠다. 이로써 불교적 사유와 관련하여 기이」편 神異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 나아가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한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 II. 불교의 국왕관과 「紀異」편에 보이는 '국왕'

『삼국유사』를 역사서로 볼 때 역사가 일연의 신분이 '승려'라는 점 또한 『삼국유사』의 성격 규정에 영향을 끼친다. 「기이」편은 민족사의 흐름과 왕의 신이한 행적에 중점을 두고 찬술된 바, 출세간을 논하는 승려가 가장 세속적이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국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불교에서 국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자.

왕의 기원에 관한 불교의 견해는 『長阿含經』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 내용을

---

: 민영규, 1986, 「일연의 悲願」, 『回歸』 2, 범양사출판사 ; 채상식, 1988(a), 「일연(1206~1289)의 사상적 경향」, 『한국문화연구』 1,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원 ; 김상현, 1997, 「일연의 불교사상」, 『녹원스님 고회기념학술논총-한국 불교의 좌표』, 불교시대사. 선사로서 가지산문과 관련된 선사상에 주목해 왔으나 『삼국유사』에는 선종에 대한 서술이 없기 때문에 일연의 선사상을 통해 그 역사관이나 주제의식을 읽기에는 한계가 있다.

요약하면, “인류가 곡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토지의 경계가 생기고 사유가 성립하여 다툼과 소송이 일어났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공평한 임금(평등주)을 세워 백성을 보호하고 선을 상주고 악을 벌하도록 위임하였고, 자신들의 이익 중 일부를 임금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왕이란 사회적 갈등과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존재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사회계약설과 유사한 입장으로 보고 있다.<sup>5)</sup>

그러나 석가모니 생전에 여러 국가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으며, 왕이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강대한 권력을 사용하여 백성들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이에 불교에서는 힘이나 권력에 의한 통치가 아닌 正法으로 治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상적인 왕으로 ‘바퀴를 굴러 사방을 정복·통치·순행하는’ 왕 중의 왕이지만, 무기에 의존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통치하는 ‘轉輪聖王’을 강조하였다.<sup>6)</sup> 한편 현실적으로 강력한 권력·권한을 가진 국왕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서 경전 속에서도 국왕을 ‘신성한 존재’로 표현하거나 神에 비유하기도 하는 등 왕권신수설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sup>7)</sup>

그 대표적인 경전이 『金光明最勝王經』으로,<sup>8)</sup> “前世的 착한 업력(善業)으로 말미암아 천상에 나서 왕이 되었는데, 만일 인간 중에 있더라도 나라 거느리는 임금이 되리. … 어머니 땃 속에 들어간 뒤에도 … 비록 태어나 인간에 있더라도 소중한 여기므로 하늘(天)이라 이르네. 모든 하늘이 옹호하는 까닭에 또한 天子라 이름 얻었지.”<sup>9)</sup>라고 하여 왕이 天 또는 天子라는 이름을 얻은 이유

5) 中村元 지음, 차차석 옮김, 1993, 『불교정치사학회』, 불교시대사, 57-59쪽.  
 6) 『長阿含經』 卷6 「전륜왕수행경」에 전륜왕이 통치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7) 中村元 지음, 차차석 옮김, 1993, 『불교정치사학회』, 불교시대사; 홍정식, 1973, 불교의 정치관, 『불교의 국가·정치사상 연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73-76쪽.  
 8) 담무참 역의 4권 『금광명경』, 593년에 寶貴가 엮은 8권 『합부금광명경』, 당 義淨이 703년에 번역한 10권 『금광명최승왕경』이 있다. 『최승왕경』은 성덕왕 3년(704)에 신라에 전해졌으며, 고려시대에 널리 유통되었다.  
 9) 『금광명최승왕경』(동국역경원, 1987, 『한글대장경 41- 법화경 외』, 438-439쪽.

를 설명하고 있다.

기이」편에서 고조선 시조인 단군을 비롯하여 삼국의 시조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자식으로 표현되어,<sup>10)</sup> 곧 시조는 태생부터가 천자임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천자설·천손의식은 불교 수용 전의 전통사상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이해되지만, 앞서 본 불교 경전 속 국왕관과 전혀 배치되는 논리는 아니므로,<sup>11)</sup> 일연도 왕을 '천자'로 바라보던 인식 하에 시조의 신이함을 통해 왕권의 신성함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불교에서 天(deva, 提婆)은 天人 또는 神을 일컫는 말이자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 즉 六道의 하나인 天趣, 十界의 하나인 天界를 뜻하기도 한다. 불교의 天은 여전히 윤회하는 세계로 절대자나 주재자는 아니지만, 10善을 닦아야 天報를 얻어 그곳에 태어날 수 있다.<sup>12)</sup> 그러므로 천 또는 천자로 불리는 왕은 신성한 존재이며, 그 신성성은 '諸天의 加護'나 神(=deva, 천신)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 A-① (진평왕) 즉위 원년 天使가 궁전의 뜰에 내려와 왕에게 말하길, “上皇께서 내게 명하여 옥대를 전하라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친히 꿇어앉아 받자 그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다. 무릇 郊廟·大祀에는 모두 이것을 착용하였다.<sup>13)</sup>
- ② 용이 말하길, “이것은 비유하자면 한 손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이, 이 대나무라는 물건은 합한 후에야 소리가 납니다. 성왕(聖王)께서는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좋은 징조

10) 『三國遺事』 卷1 紀異1 古朝鮮. “桓雄天王”; 『三國遺事』 卷1 紀異1 高句麗. “天帝之子解慕漱”

11) 삼국의 불교수용 목적은 왕권강화로, 천신의 권위를 상대화하고 천손의식에 입각한 귀족들의 권위를 상대화하였다고 하고, 전통신앙과 불교 간의 상호영향으로 고대 지배세력들의 천손의식이 불교적으로 변용되기도 하였음을 지적하였다(徐永大, 1998, 「新羅의 佛教受容과 天神觀念」, 『韓國思想史學』 10, 30쪽).

12) 金煥泰, 1978, 「新羅佛教 天神攷」 『佛教學報』 15 : 1987, 『新羅佛教研究』, 민족문화사, 424쪽

13) 『三國遺事』 卷1 紀異1 天師玉帶. “即位元年 有天使降於殿庭謂王曰 上皇命我傳賜玉帶” 王親奉跪受 然後其使上天 凡郊廟大祀皆服之”

입니다.”라고 하였다.<sup>14)</sup>

- ③ 왕의 아버지 대각간 효양(孝讓)이 대대로 전해져 오는 만파식적을 왕에게 전했다. 왕은 이것을 얻었으므로 天恩을 두텁게 입어 그 덕이 멀리까지 빛났다.<sup>15)</sup>

예컨대 ①에서 진평왕은 즉위년에 천사를 통해 上皇이 보낸 玉帶를 받았다. 진평왕은 제석천을 모신 내제석궁을 창건하기도 했는데, 제석천은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을 다스리는 존재로 고대사회의 天이 불교적으로 변용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sup>16)</sup> 그러므로 여기 上皇은 천신 곧 제석천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옥대를 통해 진평왕이 천신, 즉 제석천의 보호를 받는 존재임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다.

②에서 신문왕은 즉위 이듬해(682)에 海中大龍이 된 아버지 문무왕과 天神이 된 김유신이 보낸 대나무를 받아 이것으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를 화평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용왕과 천신은 불법을 수호하고 부처를 보호하는 존재이므로,<sup>17)</sup> 先王과 그 신하가 용왕과 천신이 되었다는 것은 곧 이들이 불교적 ‘神’이 되어 수호자를 자처했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는 ③에서 원성왕이 이 만파식적을 아버지로부터 전해 받고 ‘天恩’을 입었다고 한 표현에서 더 잘 드러난다.

이처럼 천이나 천신이 된 왕으로부터 받은 옥대와 만파식적은 현재의 왕이 고대의 이데올로기처럼 천손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天의 수호·지지를 받고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 준다. 그 증명은 곧 왕위의 정당성으로 이어졌다. 진평왕의 즉위는 舍輪系에서 銅輪系로 신라 왕위계승의 계보가 변화하는 시점이

14) 『三國遺事』卷2 紀異2 萬波息笛. “龍曰 “比如一手拍之無聲 二手拍則有聲 此竹之爲物合之然後有聲 聖王以聲理天下之瑞也 王取此竹作笛吹之 天下和平 今王考爲海中大龍 庾信復爲天神 二聖同心 出此無價大寶 令我獻之”

15) 『三國遺事』卷2 紀異2 元聖王. “王之考大角干孝讓傳祖宗萬波息笛 乃傳於王 王得之 故厚荷天恩 其德遠輝”

16) 안지원, 1997, 「신라 眞平王代 帝釋信仰과 왕권」, 『역사교육』 63, 76쪽.

17) 제석천은 사천왕과 8부신중을 권속으로 거느리는데, 8부신중은 천·용·가루다 등으로 특히 천·용이 강조되므로 天龍八部라고 일컫기도 한다.

었고,<sup>18)</sup> 원성왕도 무열왕계에서 나물왕계로 새로운 왕계를 열었는데<sup>19)</sup> 옥대와 만파식적이 이들의 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天이 준 상징물에 관한 기록을 통해 일연은 왕의 신성한 지위와 왕통의 정통성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왕은 어떤 사람인가? 세습적인 왕위계승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었다. 『금광명최승왕경』을 비롯한 제 불경에서는 기본적으로 善業을 쌓아야 하고,<sup>20)</sup> 正法으로 왕이 되고 正法을 행하는 왕이어야 함을 설한다.<sup>21)</sup> 기이」편에 왕의 자질에 대해 직접 논한 것은 없으나 반대로 부정적으로 서술된 국왕의 모습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①-a. 太建 8년 병신년에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린 지 4년 음란하여 정사가 어지러워져 국인이 폐위시켰다.<sup>22)</sup>

-b. (진지왕 4년) 가을 7월 17일 왕이 죽었다.<sup>23)</sup>

② 상제가 다시 불러 말하기를, “하늘과 사람 사이를 어지럽힐 수 없는데, 지금 스님이 이웃 마을처럼 왕래하면서 천기를 누설하였으니, 이후로는 다시 다니지 말라”라고 하였다. ·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막을 수가 없었으니, 표훈스님의 말이 맞았다.<sup>24)</sup>

18) 진흥왕의 태자 동륜이 572년에 사망함에 둘째 아들인 사륜이 즉위하였고 (진지왕), 진지왕이 4년만에 물러남으로써 동륜의 아들인 진평왕이 즉위하였고, 이후 진평왕의 딸인 선덕왕과 조카인 진덕왕이 차례로 즉위하면서 동륜계로 왕위가 이어졌다(『三國史記』 卷4 진지왕 즉위년조, 진평왕 즉위년조).

19) 원성왕은 나물왕 12대손으로, 宣德王이 아들이 없이 죽자 신하들이 왕의 친척 조카인 金周元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갑자기 關川이 넘쳐 주원이 건너오지 못하자 국인이 김경신(원성왕)을 세웠다(『三國史記』 卷10 원성왕 즉위년조). 이후 신라 하대 왕은 원성왕계가 이었다.

20) 불교의 세계관에서 ‘천계’에 태어날 수 있는 자는 10선을 이룩한 자라고 한다. 왕이 천자가 될 수 있는 근거 또한 선업에 있는 것이다.

21) 中村元 지음, 차차석 옮김, 1993, 『불교정치사학회』, 불교시대사, 439-440쪽.

22) 『三國遺事』 卷1 紀異1 桃花女 鼻荊郎. “太建八年丙申卽位 御國四年 政亂荒 嬖 國人廢之”

23) 『三國史記』 卷4 眞智王 4년조. “秋七月十七日 王薨”

①의 진지왕과 관련하여 『三國史記』에서는 재위 4년만에 사망했다고만 서술하였으나, 『삼국유사』에서는 '정치가 문란해졌고 왕이 황음에 빠져 국민이 폐위시켰다'고 하여 진지왕의 재위기간이 4년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어 진지왕과 사랑부 도화녀와의 일화를 담았다. 불교의 5戒에 不邪淫이 포함될 뿐 아니라 왕이 준수해야 할 윤리덕목 중에도 '국왕은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항상 자기 아내만을 보호할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다.<sup>25)</sup> 그러므로 진지왕의 행동은 善業도 아니며, 正法은 더욱 아니었기에 폐위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일연은 이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는 경덕왕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들을 낳고자 했던 경덕왕은 表訓을 통해 天帝에게 요구하여 아들, 혜공왕을 얻었다. 이때 천제는 하늘과 인간 사이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표훈을 더 이상 하늘에 오지 못하게 하였고, 나라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결국 혜공왕대 도적이 들끓고 96각간이 다투는 난리가 발생하였다.<sup>26)</sup> 혜공왕은 비록 경덕왕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그 출생이 정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일연은 「경덕왕」 혜공왕」 두 항목에 걸쳐 “표훈 스님의 말이 맞았다(訓師之說驗矣)”, “표훈이 말한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이 이것이었다.(表訓之言國殆是也)”라고 거듭 평하였다.

그러면 왕이 善業을 행하고 正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대승대집지장십륜경』 「十輪品」에서 '처음에 왕위에 올라 임무를 시작할 때 첫째 군대를 잘 양성하여 적의 항복을 받아야 하며, 둘째 가옥과 토지를 잘 경영하여 인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공·상업을 장려하여 인민들이 갖가지 물자와 재보의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7)</sup> 이에

24) 『三國遺事』 卷2 紀異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帝又召曰 天與人不可亂 今師往來如隣里漏洩天機 今後宜更不通... 盜賊蜂起不遑備禦 訓師之說驗矣”

25) 『增一阿含經』 卷42 「結禁品」; 홍정식, 1973, 「불교의 정치관」, 『불교의 국가·정치사상 연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81쪽 재인용.

26) 『三國史記』 卷9 혜공왕 4년7월조; 『三國遺事』 卷2 紀異2 혜공왕.

27) 『大乘大集地藏十輪經』 卷2 「十輪品」(동국역경원, 2004, 『한글대장경』 54-아

의하면 왕의 임무는 압축적으로 국토 수호와 안전한 국토 내에서 백성들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점은 다른 여러 경전에 보이는 국왕의 임무와도 내용상에 큰 차이가 없다.<sup>28)</sup>

삼국 간 또는 외적과의 전쟁이 많았던 삼국시대에 국토 수호와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국왕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예로 아래의 두 기사가 주목된다.

C-① 제14대 유리왕(儒理王)대에 伊西國 사람들이 와서 金城을 공격하였다. 우리가 막으려 했으나 오랫동안 견딜 수 없었다. 홀연히 이상한 병사가 있어 와서 도와주었는데 모두 竹葉을 귀에 꽂고 있었다. 우리 병사와 힘을 합쳐 적병을 공격해 격파했다. 적군이 물러간 후에 돌아간 곳을 알 수 없었다. 다만 죽엽이 미추왕릉 앞에 쌓여 있음을 보고 선왕의 음덕이 있었음을 알았다.<sup>29)</sup>

② 처음에 백제군사와의 黃山전투에서 장춘랑과 파랑이 진중에 죽었는데, 후에 백제를 토벌할 적에 태종의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臣 등은 이전에 나라를 위하여 몸을 버리었고 지금은 백골이 되었으나 나라를 수호하고자 하여 軍行을 따르길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장수 소정방의 위엄에 놀려 뒤만 쫓아다닙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저희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주십시오.” 하였다.<sup>30)</sup>

①에서 신라 유리왕 때 이서국인이 침략해 왔으나 막아내지 못하자, 죽은 미추왕의 죽엽군이 나타나서 신라군과 힘을 합쳐 적을 물리쳐 주었다고 한다. ②에서 장춘랑과 파랑은 백골이 되었음에도 신라를 보호하고자 종군했는데, 매번 소정방의 위엄에 놀려 뒤쫓는 형세가 되니 왕에게 힘을 달라고 청하였다.

차말보살경 외, 314-315쪽)

28) 홍정식, 1973, 『불교의 정치관』, 『불교의 국가·정치사상 연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77쪽.

29) 『三國遺事』 卷1 紀異1 味鄒王 竹葉軍. “第十四儒理王代 伊西國人來攻金城 我大舉防禦久不能抗 忽有異兵來助 皆珥竹葉 與我軍并力擊賊破之 軍退後不知所歸 但見竹葉積於未鄒陵前 乃知先王陰隲有功 因呼竹現陵”

30) 『三國遺事』 卷1 紀異1 長春郎罷郎. “初與百濟兵戰於黃山之役 長春郎·罷郎死於陣中 後討百濟時 見夢於太宗曰 臣等昔者爲國亡身至於白骨 庶欲完護邦國 故隨從軍行無怠而已 然迫於唐帥定方之威 遂於人後爾 願王加我以小勢”

이 두 기록은 크게 보면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나타내지만,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왕'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다. 미추왕의 경우 본인의 군대를 동원하여 적을 물리쳤고, 장춘과 파랑의 경우 자신들의 부족함을 왕에게 호소함으로써 왕에게 문제 해결을 청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장춘랑과 파랑의 혼령이 무열왕에게 唐이 백제 정벌을 결정했음과 정벌 일정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으나,<sup>31)</sup> 일연은 이들이 종군하고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물론 왕이 사찰을 세워 이들의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장춘랑 등이 왕에게 청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의 증원이나 사기충전을 의미했을 것이다.<sup>32)</sup>

앞서 『십륜경』을 통해 왕위에 올라 처음 해야 할 왕의 임무는 '군대를 양성하여 적을 항복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던 바, 미추왕이나 장춘랑 등의 전설은 적을 항복시키고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군대를 양성·동원해야 하며, 그 일은 당연히 '왕'이 해야 함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일연이 살았던 시대가 몽골과의 기나긴 전쟁을 겪었던 때라 국토 방어·수호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그 항쟁 또한 왕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최씨 정권의 강화 천도를 통해 장기전이 되었다. 때문에 일연은 죽은 미추왕의 군사적 활동이나 죽은 혼령의 위로를 통해 신라군의 사기를 높이고자 한 무열왕의 행동을 통해 국토 수호에 있어서 왕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일연은 국토 수호를 위한 군사적 행위에 부정적이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탐상」편을 비롯한 곳곳에서 신라가 불국토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신라인의 인식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록을 채록한 일연의 인식으로도 볼 수 있다. 불국토의 수호라는 점에서 왕의 군사적 행위는 용인되었다.

31) 『三國史記』 卷5 무열왕 6년조. “忽有人於王前 若先臣長春·罷郎者言曰 臣雖枯骨 猶有報國之心 昨到大唐 認得皇帝命大將軍蘇定方等 領兵以來年五月 來伐百濟 以大王勤作如此 故茲控告”

32) 무열왕은 신라 병사들이 당나라 장수 소정방의 위엄에 놀리지 말 것까지도 기원했을 것으로 보았다(김상현, 2011, 「一然의 一統三韓 認識」 『新羅文化』 38, 221쪽).

한편 기이·편은 삼국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과 삼국의 건국신화, 그리고 신라사를 왕순으로 각 왕대의 특이한 사건 등을 기록하면서 국가명이나 王名·인명 등을 항목 제목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부설」조는 제목부터 다른 항목과 성격을 달리 하며, 애장왕·헌덕왕·문성왕대에 겨울이 아닌 계절에 눈이 내린 사실을 묶어서 한 항목으로 신고 있다.<sup>33)</sup> 성덕왕대 흉년으로 인해 실시했던 구제사업에 관한 내용은 성덕왕이라는 제목 하에 독립된 항목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기사를 『삼국사기』 기록과 비교해 보면,<sup>34)</sup> 애장왕이나 헌덕왕대 눈에 관한 재해가 있었으나 일어난 해와 달이 다르고, 문성왕대에는 그런 기사가 없다. 일연이 다른 기록을 참고했을 수도 있으나, 재해 관련 기록을 수록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유교에서 말한 천인감응설로 볼 수도 있으나,<sup>35)</sup> 『삼국사기』에서는祥瑞에 관한 기록도 많은 반면에 『삼국유사』에는 상서 기사를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서술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중대에도 많은 재해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중대 재해 기록은 성덕왕조 뿐이며, 혜공왕, 효공왕, 경명왕조에서도 갖가지 흉조를 기록하는 등 신라 하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물론 현강왕 때 京師에 초가가 하나도 없고 풍악과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바람과 비도 순조로운 태평성대였다고 전한다. 이때 왕이 동해로 행차하여 마침 雲霧를 만났는데, 이것이 동해룡의 조화임을 알고 용을 위해 '사찰을 건립'하자, 동해룡이 7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나와 왕의 덕을 찬양하여 춤추고 풍악을

33) 『三國遺事』 卷2 紀異2 早雪. “第四十哀莊王 末年戊子八月十五日有雪. 第四十一憲德王 元和十三年戊戌三月十四日大雪 元和盡十五無丙寅. 第四十六文聖王 己未五月十九日大雪 八月一日天地晦暗”

34) 『三國史記』 卷10 哀莊王 8년(807) 8월조. “秋八月 大雪”; 『三國史記』 卷10 憲德王 14년(822) 2월조. “夏五月 下雪”

35) 『삼국유사』에 보이는 도참설적 입장은 유교의 천인감응설과 관련이 있으므로, 일연이 신이를 기록한 것이 유교와 근본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金仁晷, 1997, 「李承休의 歷史認識과 現實批判論의 方向」, 『韓國思想史學』 9).

연주하였으며, 아들 처용에게 왕정을 보좌하도록 하였다고 한다.<sup>36)</sup> 『삼국사기』에서는 헌강왕 5년에 동해 주군으로 순행하던 차, 4명이 나타나 춤추고 노래했는데 사람들이 山海精靈이라고 했다고 하며, 이듬해 6년에 월성루에 올라 태평성세를 논하는 기록을 신고 있다.<sup>37)</sup> 즉 『삼국사기』에서는 정령의 출현과 태평성세를 연결시키지 않고 있으나, 『삼국유사』에서는 헌강왕대의 태평성세를 먼저 언급하고 이어서 동해룡의 출현과 처용의 등용에 관한 이야기를 실어 ‘용’과 처용이 태평성세를 증명하는 듯 기록하고 있다.<sup>38)</sup> 즉 태평성세를 사찰의 건립과 왕의 덕을 찬양하는 용의 출현이라는 불교적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D. 또 (헌강왕이) 포석정에 행차했을 때 南山神이 어전에 나타나 춤을 추었는데, 좌우의 신하는 보지 못하고 왕만 보았다. 어떤 이가 앞에 나와 춤을 추니 왕이 몸소 춤을 추어 그 모양을 보였다. · 또 금강령에 행차했을 때 北岳神이 나와 춤을 추어 玉刀鈴이라 이름하였다. 또 同禮殿 연회 때 地神이 나와 춤을 추어 地伯級干이라 이름하였다. · 곧 地神 山神이 나라가 망할 것을 알아 춤으로 그것을 경고했으나 국민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상사가 드러났다고 하여 향락에 심하게 빠져 나라가 결국 망했다.<sup>39)</sup>

그러나 위 기록을 보면 헌강왕대 남산신·북악신·지신이 나와 춤을 추었는데, 지신·산신이 나라가 망할 줄 알고 춤으로 경고했으나 오히려 국민들이 상

36) 『三國遺事』 卷2 紀異2 處容郎 望海寺.  
 37) 『三國史記』 卷11 신라본기11 헌강왕 5년·6년조.  
 38) 망해사 창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동해룡은 護佛龍이며, 처용의 가무는 불성 교화의 가무로 보기도 한다(黃湜江, 「處容歌研究의 史的 反省과 一試考」, 『古典文學研究』 2). 한편 남산신 등의 춤이 국망을 경고한 것처럼 처용의 가무도 그와 같은 뜻을 전달하려 한 輔政의 가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李龍範, 1969, 「處容說話의 一考察 -唐代 이슬람商人과 新羅-」, 『震檀學報』 32). 강인구 외, 2002, 『역주 삼국유사 II』, 이회문화사, 125-131쪽 참조.  
 39) 『三國遺事』 卷2 紀異2 處容郎 望海寺. “又幸鮑石亭 南山神現舞於御前 左右不見王獨見之 有人現舞於前 王自作舞以像示之 … 又幸於金剛嶺時 北岳神呈舞 名玉刀鈴 又同禮殿宴時 地神出舞 名地伯級干 … 乃地神·山神知國將亡 故作舞以警之 國人不悟謂爲現瑞 耽樂滋甚故國終亡”

서로 여기고 향락에 빠져 나라가 마침내 망했다고 한다. 자칫 상서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유교의 천인감응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천신을 비롯한 신은 왕을 수호하면서 왕의 신성성을 증명하는데, 이러한 산신·지신이 출현하는 것은 곧 왕의 신성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는 것이다.

태평성세를 논하던 현강왕대에 각종 신들이 출현하여 국망을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 기록에서 ‘향락에 빠져’라고 표현한 것처럼 포석정·금강령으로의 행차와 동례전에서의 연회 등은 왕의 향락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정법이 아닌 非法이므로 결국 國亡에 이르게 되고 제천·제신도 더 이상 수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광명최승왕경』에서 “非法이 횡행하면 적의 침략을 받아 국토가 파괴되며, 국왕이 정법에 의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흉년이 들어 기근에 빠지고 악당들이 서로 결탁하여 왕위가 위태로워지며 국가도 패망할 것이며, 국왕이 정법으로 다스리면 諸天도 국가와 국왕을 보호하고 雨順風調하고 國泰民安하여 국왕과 국민은 無上의 안락을 누릴 것이다.”고 하였다.<sup>40)</sup> 즉 정법이 아닌 비법에 의한 정치는 외적의 침략 또는 흉년·기근으로 나타나며 결국 국가를 패망시킨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국왕이 해야 할 임무, 첫째 국토 수호와 둘째 백성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기이」편에 보이는 잦은 재해는 왕이 자신의 임무에 소홀한 결과이고, 곧 정법에 의한 정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표징이다. 신라 하대 왕들에 관한 기록에서 재해 관련 기사를 많이 수록한 일연의 의도를 읽어볼 수 있다.

기이 편은 천 또는 천손으로 시조의 신이함을 기록한 데에 그치지 않고, 이후 왕들의 기이한 행적들을 기록하여 왕의 신성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국왕의 역할로서 국토 수호와 백성의 안정을 기준으로 천신의 수호 또는 천신의 경고를 통해 왕의 잘잘못, 정법에 의한 통치 여부 등을 담아내기도 하였다.

40) 『金光明最勝王經』卷8「王法正論」; 홍정식, 1973, 「불교의 정치관」, 『불교의 국가·정치사상 연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67쪽.

### Ⅲ. 一然의 시대 인식과 국왕관

#### 1. 一然의 생애와 시대 인식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이]편에 수록된 국왕의 면모는 불교의 국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찬자 일연이 승려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일연이 살았던 13세기가 밖으로는 몽골과의 항쟁이 있었지만 안으로는 최씨 무신정권 하에 있었고, 이후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일연의 시대 인식이 기이]편에 투영되었을 것이다. 일연의 생애를 통해 그의 시대인식과 국왕관을 살펴보자.

일연의 생애를 보면,<sup>41)</sup> 경북 경산 출생으로 9세에 광주 무량사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여 14세에 진전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승려로서의 길을 가게 되었다. 진전사는 신라에 禪宗을 처음으로 전한 道義선사가 은거하였던 곳이며, 9산선문 중 가지산문의 연원지로 일연과 가지산문의 인연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227년 僧科의 최고 시험인 選佛場에서 上上科에 합격했으나 이후 포산(현풍 비슬산)에 들어가 수행에 힘썼으며, 이 산에 머문 지 9년만인 1236년에 몽골의 병화가 미치기 시작하자 이 포산에서 20여 년간 선을 닦으며 세속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던 일연은 1249년에 남해로 옮겨가는데, 鄭晏이 남해에 定林社를 세우고<sup>42)</sup> 일연을 주지로 초청했기 때문이다. 정안이 어떤 인물이기에 일연은 그의

41) 일연의 생애는 「麟角寺 普覺國師碑」의 비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이 비는 일연이 입적한 6년 후인 충렬왕 21(1295)에 세워졌으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다. 비문 탁본이 20여종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명제, 2011, 『한국금석문집성 25- 고려9 비문9』, 한국학진흥원을 참고하였다.

42) 정안은 고종 10년(1223) 경부터 江月庵을 남해에 건립하고 있었고, 강월암을 고종 36년(1249)에 정립사로 명칭을 바꾸어 개창한 것이라고 한다(金光植, 1993, 「鄭晏의 定林社 創建과 南海分司都監」, 『建大史學』 8, 57쪽).

칭을 받아들여 속세로 나와 활동하게 되었을까. 일연의 활동이 이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 해를 일연의 생애에서 분수령이 된 시기로 볼 수 있다.<sup>43)</sup> 따라서 일연의 생애를 시대적 배경뿐 아니라 정안 집안의 동향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연도	시대적 배경 (집권세력)	하동 정씨의 행적	일연의 행적
1206 (희종2)			경주 장산군(경산)에서 출생
1211		정숙첨, 최충헌을 살해 음모에서 구함	
1215 (고종2)		정숙첨, 반역을 피한다고 무고됨	
1217		정숙첨, 최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하동으로 유배	
1219 (고종6)	최충헌 사망. 崔怡, 교정별감	정숙첨, 평장사 관직에 제수	진전사 대웅장로에게 구족계 받음
1227 (고종14)			上上科에 登第
1231	최이의 처(정숙첨의 딸, 정안의 누이) 사망		
1232	강화도로 천도		
1236			포산 무주암에 주석

43) 일연의 생애를 포산에 주석하던 시기(1227~1248), 정안의 초청으로 남해에 거주하던 시기(1249~1260), 원종의 명으로 경상도 지역에 주석하던 시기(1261~1276), 충렬왕과 관련하여 활동하던 시기(1277~1289) 등 4시기로 구분해 보거나(채상식, 1979, 「보각국존 일연에 대한 연구-가지산문의 등장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26, 51쪽), 진전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포산에 거주한 시기(1219~1248), 정안의 초청으로 남해 및 선월사에 거주한 시기(1249~1263), 운문사 및 인각사에 거주하며 입적한 시기(1264~1289) 등 3시기로 구분해 보기도 한다(김두진, 2002, 「一然의 生涯와 저술」, 『全南史學』 19, 175쪽). 정안의 초청으로 남해로 와서 거주하던 1249년이 일연의 생애와 행적에 분수령이 되는 것은 동일하다.

(고종23)			
1237 (고종24)			포산 妙門庵에 머뭄. 삼중대사 받음
1241 (고종28)		정안, 국자궐주에 임명. 이후 남해로 내려감	
1246 (고종33)			禪師가 됨
1247	서자 萬全(崔沆) 환속.		
1249 (고종36)	최이 사망. 최항 등장	정안, 남해 정림사 창건	남해 정림사 주지로 감
1251 (고종38)	왕이 대장경판당에 행차하여 분향함.	정안, 知門下省事, 參知政事에 올랐으나 최항을 비난한 일로 유배. 이후 사사됨.	
1256 (고종43)			남해 길상암에서 ■ <small>호</small> 동요위 ■ <small>호</small> 중편
1257	최항 사망. 崔嬭 등장		
1258	무오정변. 최의 사망.		
1259	몽골과 강화		大禪師에 제수
1261 (원종2)			왕명으로 강화 禪月社 주석.
1264			오어사에 머물다, 仁弘社로 옮김.
1268 (원종9)			大藏落成會 主盟이 됨.
1269	원종폐위→복위		
1277 (충렬왕3)			왕명으로 운문사 주석.
1281 (충렬왕7)			경주 행재소에서 왕을 알현
1282			왕명으로 개경 廣明寺 머뭄
1283			國尊으로 책봉
1284			麟角寺를 하산소로 삼음
1289 (충렬왕15)			입적

정안의 아버지 정숙침이 최충현의 목숨을 구해주고, 누이가 崔怡와 혼인함

으로써 정씨 집안은 최씨 무신정권을 지탱하는 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1217년 정숙침이 최충헌 모살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사위인 최이 덕분에 하동에 유배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sup>44)</sup> 정안은 어려서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어머니가 연로하다는 이유로 고향 하동으로 내려왔다. 이후 최이의 추천으로 國子祭酒가 되어 1241년에는 科擧를 주관하기도 하였으나, 최이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을 보고 남해로 피해 살았다. 1251년 최항이 집권자로 등장하면서 知門下省事에 임명되어 참지정사가 되기도 하였으나, 얼마 후 최항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유배된 후에 사사되었다.<sup>45)</sup> “沈과 晷은 평소에도 틈이 있었으나 人望을 수렴하고자 겉으로는 비록 예를 갖추더라도 안으로 실상 시기하였다.”<sup>46)</sup>라는 기록에서 정안이 최씨 정권과는 표면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안은 최씨 정권 하에서 단기적인 관직 생활에 그쳤다.

그러나 대장경 간행 사업에는 사재를 희사하여 나라와 반씩 부담할 정도로 적극 참여하였다.<sup>47)</sup> 1241년 이후 정안이 남해로 내려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대장경 간행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안이 최이를 피해 남해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하동을 중심으로 한 정안의 경제력이 대장경 사업을 맡길 만 했을 뿐 아니라 정안의 입장에서는 佛心을 실행하며 물리적으로 최이와 거리를 둘 수 있었다. 한마디로 대장경 사업은 정안과 최씨 정권의 不可遠 不可近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1251년에 고종이 대장경판당에 나아가 분향한 점에서<sup>48)</sup> 1248년 「대장목록」 간행을 끝으로 正藏의 판각은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49)</sup>

44) 『高麗史』 卷100 列傳13 鄭世裕 附 叔瞻.

45) 『高麗史』 卷100 列傳13 鄭世裕 附 晏傳 : 『高麗史節要』 卷17 高宗 38년 5월

46) 『高麗史』 卷100 列傳13 鄭世裕 附 晏傳. “沈與晏, 素有隙, 欲收人望, 外雖禮貌, 內實猜忌”

47) 『高麗史』 卷100 列傳13 鄭世裕 附 晏傳. “好佛, 遊遍名山勝刹, 捨私貲, 與國家, 約中分藏經刊之”

48) 『高麗史』 卷24 世家24 高宗 38년 9월조. “壬午 幸城西門外大藏經板堂, 率百官行香. 顯宗時板本, 燬於壬辰蒙兵, 王與群臣更願, 立都監, 十六年而功畢”

정장 판각이 끝난 이듬 해인 1249년에 정안이 정립사를 세우고 일연을 초청하였다. 정안이 사재를 희사하여 창건하였다고 한 점에서, 그리고 補版이 1254년까지 지속된 점에서 최씨 정권이 주도한 국가사업으로 正藏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불교 관련 판각 작업 공간으로 정립사를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sup>50)</sup>

이 점은 20년 넘게 포산에서 수행하던 일연이 정안의 청을 받아들여 정립사 주지로 머문 이유이기도 하다. 최씨 무신정권은 修禪社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가자산파인 일연은 자의든 타의든 최씨 무신정권과 관련이 없었다. 1246년에 일연의 僧階가 '禪師'에 이르렀는데, 선종의 禪師 이상과 교종의 首座 이상은 왕의 교서가 주어지므로 이미 일연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49년에 정안의 초청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1247년에 최이의 서자 최항이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정안과 최항은 혈연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최씨 정권과의 관계도 형식적이었거나 더 멀어지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51)</sup> 정장이 마무리된 후 정안이 정립사를 새롭게 정비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무신정권과 연계된 수선사가 아닌 가자산문의 일연을 초청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안의 초청을 수락하고 오랜 은둔을 끝낸 것으로 보아 일연은 최씨 무신정권과 연결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1251년 정안이 사망한

49) 1243~1245년 사이의 판각 양이 전체의 약 6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상영, 1993, 「一然과 再雕大藏經 補版」, 『중앙승가대학 교수 논문집』 2, 313-314쪽).

50) 보판 조성은 크게 선 관련 전적들에 대한 판각, 또 하나는 균여 저술에 대한 판각 의도가 있었는데, 정장에 수용되지 못한 선 전적들의 판각 작업이 정안과 일연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김상영, 1993, 「一然과 再雕大藏經 補版」, 『중앙승가대학 교수 논문집』 2, 314-319쪽). 한편 최이에 반발한 정안이 최이와 연결된 수선사 계통을 기피한 결과 별개의 출신인 일연을 초청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채상식, 1979, 「普覺國師 一然에 대한 研究-迦智山門의 登場과 關係하여-」, 『韓國史研究』 26, 54쪽).

51) 최항은 최이의 서자로 정안과는 혈연적 관계가 전혀 없다.

후에도 일연은 정림사에 머물며 보판 관련 사업을 이어나갔고, 이때는 최항의 권한 하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52)</sup> 일연이 최씨 정권과 연계되고자 했다면<sup>53)</sup> 정림사에 계속 머물렀을 터인데, 1256년 길상사로 옮겨 가 조동오위를 증편하면서 '부득이하게 얽매어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餘閑을 얻었다.'고<sup>54)</sup> 하였다. 이 표현에서 일연은 정안의 사후에도 정림사에서 맡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했고, 그 기간이 결코 편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55)</sup> 위 표에서 보듯이 1260년 이후 일연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이 시기는 최씨 무신정권이 몰락하고 몽골과의 강화가 추진되어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는 때였다. 이 무렵부터 일연은 원종과 충렬왕의 명을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1258년 김준이 왕정복고를 내세우며 정변을 일으켜 최항을 제거하였으나 무신정권의 계승자로 몽골과의 강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원종은 일연을 이용하여 김준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일연의 경우도 몽골에 대한 입장이 기존 무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결국 원종은 일연을 처단하기 위해 몽골군을 요청하고 세자(충렬왕)와 몽골 공주와의 혼인도 요청하였다.<sup>56)</sup> 이에 1269년 일연은 원종의 폐위를 책동했으나 세자가 원 황제에게 군사를 청해 데려와 무신정권을 타도하고 마침내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충렬왕은 원 세조의 부마가 되어 왕실의 지위를 강화하였다. 특히 충렬왕은 2차 일본정벌 준비에 적극적으로 엮였으며, 征東에 고려가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왕권강화에 이용하려 하였다.<sup>57)</sup>

52) 김광식, 1993, 「鄭晏의 定林社 創建과 南海分司都監」, 『建大史學』 8, 76쪽.

53) 채상식은 1246~1260년까지 일연이 정안을 매개로 최씨정권과 연결된 시기로 보고 있다(채상식, 1988(b), 「一然」, 『한국사 시민강좌』 2, 117-118쪽).

54) “值世多難 未償素志 越丙辰夏 寄錫輪山吉祥菴 因有餘閑”(민영규, 1984, 「一然重編曹洞五位 重印序」, 『學林』 6, 219쪽)

55) 특히 최항과의 관계가 불편했을 것이다(김광식, 1993, 「鄭晏의 定林社 創建과 南海分司都監」, 『建大史學』 8, 76~77쪽).

56) 이명미, 2003, 「高麗·元 王室通婚의 政治的 의미」, 『한국사론』 49, 39-50쪽 ; 이정신 등, 2015, 『고려의 국왕』, 경인문화사, 253-254쪽.

57) 이익주, 1996, 「고려 원관계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36 ; 이정신 등, 2015, 262-267쪽.

1281년 충렬왕이 東征軍을 격려하기 위해 경주에 왔을 때 일연이 왕의 부름을 받고 행재소에 나아가 설법하였다. 그 설법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동정군을 격려하는 것이었음은 분명할 것이다. 일연의 이러한 움직임은 충렬왕의 왕권 강화에 동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일연은 1282년에 개경 廣明寺에 초치되었고, 1283년에는 國尊의 자리에 오르는 등 충렬왕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행적으로 볼 때 일연은 최씨 무신정권에 대해 비판적·부정적이었으나 왕이나 왕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58)</sup> 그러므로 일연이 말년에 찬술한<sup>59)</sup> 『삼국유사』에는 왕에 대한 애정과 왕실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sup>60)</sup> 敍에 밝힌 바와 같이 삼국의 시조를 비롯한 왕들의 神異한 기록을 담은 기이」편을 그 첫 편목으로 삼았던 것이다.

- 
- 58) 『삼국유사』에서 일연은 삼별초의 대몽항쟁을 '賊難'으로 표현(『三國遺事』 卷3 塔像4 前後所將舍利)한 것으로 보아 무신정권에 비판적이었으며, 왕정 복고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을 것으로 본다(채상식, 1988(b), 「一然」, 『한국사 시민강좌』 2, 121쪽).
- 59) 『삼국유사』 찬술 시기를 일연이 운문사에 주석한 1277~1281년 사이로 보거나(황패강, 1977, 『一然作品集』 해제, 형설출판사 : 채상식, 1979, 「普覺國師 一然에 대한 研究-迦智山門의 登場과 관련하여-」, 『韓國史研究』 26, 55쪽), 인각사주지로 있었던 1284년 이후로 보기도 한다(김상현, 1982, 「삼국유사의 간행과 유통」 『한국사연구』 38, 2~3쪽).
- 60) 고종의 장례를 주관하고, 1269년 원종의 복위, 1278년 직접 원에 친조하여 원 세조를 알현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부원세력을 숙청하는 등 재위 초기 충렬왕의 개혁적 행보와 왕권 강화 노력이 『삼국유사』에 반영된 일연의 군주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토론자 차광호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다(차광호, 2016, 「토론문 : 일연의 국왕관-『삼국유사』 「기이」편을 중심으로-」, 『제126회 한국사학사학회 연구발표회 논문집』, 한국사학사학회).

## 2. 一然의 國王觀과 이상적인 國王像

일연이 '시조의 신이'를 내세우며 기이]편을 찬술했다는 것은, 그가 사회계 약설보다 왕권신수설에 가까운 국왕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sup>61)</sup>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왕을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 강력한 권한·권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국왕 중심의 인식은 여러 불교 경전에서 언급한 국왕관에 근거를 두고, 일연의 당대 경험과 시대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연의 시대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이」편 기록이 주목된다.

- E-① (실성)왕은 前王의 태자인 놀지가 덕망이 있음을 시기하여 장차 그를 해하고자 고구려병사를 청해 거짓으로 놀지를 맞이하게 하였다. 고구려인이 놀지의 어진 행실을 보고 이에 창을 돌려 (실성)왕을 시해하고 놀지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갔다.<sup>62)</sup>
- ② 고구려 사람이 놀지의 외모와 정신이 시원스럽고 우아해 군자의 품모가 있음을 보고, 마침내 알리길, “너의 나라 왕이 나를 시켜 당신을 해치도록 했으나 지금 그대를 보니 차마 해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놀지가 이를 원망하여 도리어 왕을 시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sup>63)</sup>

신라 18대 실성왕은 나물왕이 죽고 그 아들 놀지가 어려 국인에 의해 추대되었는데, 나물왕이 자신을 고구려로 인질 보냈던 일을 원망하였다. 이후 놀지를 죽이기 위해 고구려 병사를 끌어들이었다. ①의 『삼국유사』에서는 고구려인이 오히려 실성왕을 시해하고 놀지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갔다고 하며, 한편 ②의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인이 차마 놀지를 죽이지 못하고 돌아갔고, 그

61) 한정수는 고려시대 군주관을 신성군주와 성인군주로 대별하였다(한정수, 2005, 「고려시대 君主觀의 二元的 이해와 정치적 상징」, 『국사관논총』 106).

62) 『三國遺事』卷1 紀異1 第十八實聖王. “王忌憚前王太子訥祗有德望 將害之 請高麗兵而詐迎訥祗 高麗人見訥祗有賢行 乃倒戈而殺王 乃立訥祗爲王而去”

63) 『三國史記』卷3 놀지마립간 즉위년. “麗人見訥祗 形神爽雅 有君子之風 遂告曰 爾國王使我害君 今見君不忍賊害 乃歸 訥祗怨之 反弑王自立”

사실을 알게 된 놀지가 실성을 시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한다. 두 기록 중 어느 것이 더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고구려인이 실성왕을 시해하고 놀지를 왕으로 세웠다고 기록한 것은 출전의 차이라기보다 일연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최씨 무신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왕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고려 왕은 외적이었던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하고 그 힘을 빌어 무신정권을 끝내고 왕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 특히 원종은 일연에 의해 폐위되었다가 원 황실의 문책으로 다시 복위하였다.<sup>64)</sup> 이 과정에 당시 세자였던 충렬왕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던 바, 충렬왕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일연의 입장에서 원의 도움으로 왕위를 유지한 것을 결코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구려 군사’가 오히려 실성왕을 죽이고 놀지를 왕으로 세우고 갔다고 기록한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이해·인식이 실성왕과 놀지왕의 관계에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놀지는 ‘덕망이 있고, 군자의 품모가 있었다.’고 하므로, 일연은 국왕의 자격을 갖춘 인물의 왕위 계승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신정권기 은둔·수행하던 일연은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면서 왕의 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연이 국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옹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말년에 찬술한 『삼국유사』 기이」편에서 왕의 신성성을 보여주는 기록이나 왕들의 잘잘못을 드러내는 일화 등을 수록한 것은 이러한 시대 인식의 결과물이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시기인 1287년에 이승휴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 군주(충렬왕)이 훗날 勸誡로 삼기를 바라며 帝王의 계승관계와 국가의 건국·패망을 담은 『帝王韻紀』를 편찬하였다.<sup>65)</sup> 이승휴는 이상적 군주상으로 漢 太祖와 唐 太宗을 꼽았는데, 이들은 왕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守成에도 공헌한 군주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국왕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權臣을 경계해야 해야

64) 『高麗史』 世家 권26 元宗 10년(1269) 6월21일조·11월11일조 참조.

65) 『帝王韻紀』 帝王韻紀 進呈引表.

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정권을 장악했던 武人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sup>66)</sup> 왕정복고가 이루어진 13세기 말 고려사회의 당면 과제는 국왕 권력의 확립·안정화였다고 생각되며, 이 점은 유교적 사유방식을 가진 관료나 불교적 사유에 기초한 승려나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럼 일연이 생각한 이상적 국왕상은 누구일까? 왕의 임무를 국토 수호와 백성의 안정이라고 볼 때 삼국을 통일한 무열왕과 문무왕을 떠올리게 된다. 더욱이 무열왕의 묘호가 '태종'인데 이 묘호 사용에 대해 당나라 황제가 심히 불쾌감을 드러냈고, 이에 신문왕은 "新羅가 비록 小國이지만 聖臣 金庾信을 얻어 一統三國했으므로 太宗이라 하였습니니다."<sup>67)</sup> '일통삼국' 즉 '일통삼한'을 무열왕의 업적으로 내세워 당 태종에 버금가는 인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신문왕 6년(686)에 세워진 「청주 운천동 사적비」에 '民合三韓而廣地'라는 구절이 있어 신문왕대에 일통삼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sup>68)</sup> 그러므로 신문왕이 당 고종에게 위와 같은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문왕대 일통삼한 인식이 담긴 표현이 사용되고, 김유신이 '삼한이 一家가 되었다'는<sup>69)</sup> 말을 남긴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일통삼한 의식은 고구려를 멸망시킴으로써 2국을 평정하고 당까지 축출한 문무왕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삼국유사』의 기이」편은 기이」1·2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구분은 곧 卷의 구분이 되었다. 권2의 시작이 문무왕 법민」조인 것은 일통삼한을 기준으로 신라사를 구분한 일연의 인식이 표현된 것이라 생각된다.<sup>70)</sup>

F-① (문무)왕이 평소에 智義法師에게 말하길, "짐은 죽은 후에 護國大龍이 되어 佛法을 받들고 나라를 수호하고자 한다."하였다. 법사가 "용은 축생보인데 어찌하십니까" 하니, 왕은 "내가 세상의 영화를 싫어한 지 오래되어 만약 나쁜 과보로 축생이 된다면 짐의 뜻에 합당하다."

66) 김인호, 2005, 「이승휴의 역사인식과 사학사적 위상」, 『진단학보』 99

67) 『三國史記』 卷8 신문왕 12년조 : 『三國遺事』 卷1 紀異1 태종춘추공.

68) 충북대박물관·호서문화연구소, 1982, 『청주시 운천동사적비 판독조사』

69) 『三國史記』 卷43 열전3 김유신 下.

70) 박미선, 2008, 「일연의 신라사 시기구분 인식」, 『역사와 현실』 80, 159-163쪽.

고 하였다.<sup>71)</sup>

-② 용이 말하길, “이것은 비유하자면 한 손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이, 이 대나무라는 물건은 합한 후에야 소리가 납니다. 성왕(聖王)께서는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좋은 징조입니다.”라고 하였다.<sup>72)</sup>

문무왕은 비록 畜報일지라도 죽어서 호국대룡이 되어 ‘佛法을 받들고 나라를 수호하겠다’고 하였다. 문무왕은 고구려 정벌과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삼국통일의 완수와 통일된 국토를 수호하였으므로 死後에도 이 국토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護國大龍’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곧 만파식적이라는 설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 만파식적을 불면 천하가 화평해질 것이라고 하므로, 그 자체가 신라를 보호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룡이 된 문무왕이 天神이 된 聖臣 김유신과 한마음으로 대나무를 주었다. 『제왕운기』에서 당 태종을 이상적인 군주로 본 이유가 어진 인재의 등용이었는데, 그 기준에서 볼 때 김유신은 최고의 인재이며 이를 등용한 무열왕과 문무왕은 훌륭한 군주의 상이 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유신은 무열왕의 묘호로 ‘태종’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정도로 일통삼한의 주역이었다. 이승휴가 權臣의 발호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당시 무신정권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일연은 김유신을 이상적인 신하상으로 여겼을 것이다.

“삼한이 일가가 되고 백성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니 비록 태평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도 편안해졌다고 하겠다.”는 김유신의 말에서 보듯이, 일통삼한으로 국토를 수호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국왕의 임무를 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재위 시에는 삼국통일을 완수

71) 『三國遺事』卷2 紀異2 文武王 法敏. “王平時常謂智義法師曰 朕身後願爲護國大龍 崇奉佛法守護邦家 法師曰 龍爲畜報何 王曰 “我馱世間榮華久矣 若龜報爲畜 則雅合朕懷矣”  
72) 『三國遺事』卷2 紀異2 萬波息笛. “龍曰 比如一手拍之無聲 二手拍則有聲 此竹之爲物合之然後有聲 聖王以聲理天下之瑞也 王取此竹作笛吹之 天下和平 今王考爲海中大龍 庾信復爲天神 二聖同心 出此無價大寶 令我獻之”

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 국토를 수호·보존했으며, 사후에는 용이 되어 佛法과 나라를 수호하고자 했던 문무왕이 일연이 생각한 이상적 국왕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다.

기이」편에서는 천 또는 천의 자손으로 각국 시조의 신이한 모습을 통해 신성함을 드러내고, 천신의 보호를 받는 왕의 모습, 왕의 임무로 꼽히는 국토 수호와 백성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왕의 모습, 반면에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해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일연은 이러한 과거 왕들의 사례를 통해 왕의 올바른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했던 것은 아닐까. 즉 왕의 신이함을 기록한 것은 왕의 신성성을 통해 왕의 통치를 강조하고자 했던 일연의 의도로 보인다. 동시대 이승휴가 군주의 권계가 되길 바라며 『제왕운기』를 찬술했던 것과 같은 고민의 산물이 『삼국유사』 기이편이라고 생각된다.

#### IV. 맺음말

일연이 살았던 13세기는 무인정권기, 몽골과의 전쟁, 원의 간섭까지 혼란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일연은 때론 소극적인 은둔을 택하고, 때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시대를 살아갔다. 정립사 주지를 맡았던 1249년은 일연 생애의 분수령이 된 시기로, 오랜 은둔 생활을 끝내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몽골과의 화친이 추진되고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면서 일연은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일연의 행적을 볼 때 최씨 무인정권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국왕에 대해서는 지지·옹호의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일연은 밖으로 외적의 방어, 안으로 왕의 권위·권력의 회복이 정상화의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불교 경전에서도 국왕은 국토 수호·외적 방어와 백성들의 경제 생활 안정 등을 임무로 수행해야 함을 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말년에 찬술한 『삼국유사』의 첫 편인 紀異에서 神異를 강조한 것은 국왕의 신성함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로써 왕의 지위와 권위·권력의 확립을 내세우고자 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불교에서 근본적으로 전쟁을 옹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이」편에서 왕이 군사를 통솔하고 외적을 방어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몽골과의 전쟁과 원 간섭기에 처하면서 국토 수호·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물론 일연은 왕의 군사력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정법에 의한 통치, 국왕이 스스로 정법을 지키고 정법을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즉 정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왕위가 흔들리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며, 패망할 수도 있음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외적을 물리치고 국토를 보존함은 물론 사후에 호국용이 되어 정법인 불법과 국토를 수호하고자 한 '문무왕'은 일연이 생각한 이상적 국왕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정법으로서의 불법과 국가(국왕)와의 관계는 이어지는 흥법」편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의해」 신주」편의 경우 국왕과 승려의 관계, 감통」 효선」편은 국왕과 백성의 관계를 담아 국왕의 올바른 통치·역할에 대해 일연이 말하고자 한 바를 기이」편뿐 아니라 『삼국유사』 속에서 서술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문제는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논문투고 : 2016. 6. 1, 논문심사완료 : 2016. 6. 15, 게재확정 : 2016. 6. 20

## 참고문헌

- 『三國遺事』 『三國史記』 『高麗史』
- 『長阿含經』 (동국역경원, 2010, 『한글대장경 1 장아함경』)
- 『大乘大集地藏十輪經』 (동국역경원, 2004, 『한글대장경 54-아차말보살경 외』)
- 『金光明最勝王經』 (동국역경원, 1987, 『한글대장경 41 법화경 외』)
- 金光植, 1993, 鄭晏의 定林社 創建과 南海分司都監, 『建大史學』 8.
- 金煥泰, 1978, 新羅佛敎 天神攷, 『佛敎學報』 15 ; 1987, 『新羅佛敎研究』, 민족문화사
- 김상영, 1993, 一然과 再雕大藏經 補版, 『중앙승가대학 교수 논문집』 2.
- 김상현, 1997, 「일연의 불교사상」, 『녹원스님 고회기념학술논총-한국불교의 좌표』, 불교시대사.
- 김상현, 2011, 一然의 一統三韓 認識, 『新羅文化』 38.
- 김인호, 1997, 이승휴의 역사인식과 현실비판론의 방향, 『한국사상사학』 9.
- 김인호, 2005, 이승휴의 역사인식과 사학사적 위상, 『진단학보』 99.
- 김태영, 1976, 三國遺事에 보이는 一然의 歷史認識에 대하여, 『韓國의 歷史認識 (上)』, 창작과비평사.
- 라정숙, 2000, 일연의 생애와 역사인식, 『지역학논집』 4.
- 李基白, 1976,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意義, 『韓國의 歷史認識 (上)』, 창작과비평사.
- 민영규, 1984, 一然重編曹洞五位 重印序, 『學林』 6.
- 민영규, 1986, 일연의 悲願, 『回歸』 2, 범양사출판사.
- 박미선, 2008, 일연의 신라사 시기구분 인식, 『역사와 현실』 80.
- 서영대, 신라의 불교수용과 천신관념, 『한국사상사학』 10.
- 윤석호, 2002, 일연과 역사학, 『민족문화』 13, 한성대 민족문화연구소.
- 정구복, 1987,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고찰」,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조동일, 2001, 『삼국유사』의 기본특징 비교고찰,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 中村元 지음, 차차석 옮김, 1993, 『불교정치사학회』, 불교시대사.
- 채상식, 1979, 「普覺國師 一然에 대한 研究-迦智山門의 登場과 관련하여-」, 『韓國史研究』 26.
- 채상식, 1988(a), 일연(1206~1289)의 사상적 경향, 『한국문화연구』 1,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 채상식, 1988(b), 一然, 『한국사 시민강좌』 2.
- 홍정식, 1973, 불교의 정치관, 『불교의 국가 정치사상 연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Abstract

## Ilyeon's Aspect to the King

PARK, Mi-Sun

In 13<sup>th</sup> century Korea, Ilyeon lived as a Buddhist monk. It was a period of confusion plagued with the Military Rule, war with Mongolia, and political intervention of the Yuan Empire. In 1249, Ilyeon emerged from a life in seclusion became actively involved with Korea's royal household as amity with the Mongols was strived and the power of monarchy over the nation was restored. From recorded history Ilyeon held a negative stance against the Military Rule, and enthusiastically supported the king Korea. Ilyeon deemed political power of the king be firmly established in Korea.

Ilyeon claimed the Buddhist sacred texts depicted king as a being protected by the son of Heaven or the Heaven. He also stated it the king's duty to guard against foreign threats, protect the nation's, and life of its people flourish. In Samgukyusa, chapter of Giyi accounts all the dynasties Korea where the founders of each nation were deemed the Son of Heaven or the Heaven, and were portrayed as protected by sky gods, strived to guard the nation, and to secure the prosperity of their people. In certain instances they were depicted as being abandoned by the sky gods for not fulfilling the duties. Ilyeon King Munmu as an ideal monarch. King Munmu not only unified the three kingdoms of the peninsula but brought peace, and committed himself to protect his country even in death by turning into a dragon.

Ilyeon desired to emphasize the sacredness of sovereignty and the importance of the fair and just rule of a divine king, with this intention he wrote the chapter of Giyi and placed it at the outset of Samgukyusa.

Keywords : Ilyeon, Samgukyusa, Giyi, the Heaven, King Munmu, the Military Rule